

문화 차이가 낳은 비극

글 **백장현** 한신대 초빙교수

지난 7월 서울 봉천동 한 아파트에서 탈북민 모자가 아사한 후 두 달여 방치되다가 이웃의 신고로 발견되는 충격적 사건이 일어났다. 음식물 쓰레기로 몸살을 앓을 정도로 풍요를 구가하는 대한민국에서 젊은 여성과 어린아이가 굶어 죽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은 어린 아들을 부여안고 아사한 젊은 여성에 대한 연민과 우리 사회의 극심한 빈부격차 문제, 복지 행정의 문제점 등에 대한 뼈아픈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어떻게 이 지경이 되도록 들여다보는 사람 하나 없었을까? 왜 아이 엄마는 어떤 일이든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젊은 여성이 굶어 죽을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을까?

보도에 의하면 엄마는 모자 단둘이 살고 있었기에 질환을 앓고 있던 아이를 홀로 두고 일하러 나갈 수 없었다고 한다. 추정컨대 그녀는 탈북민 지원 제도나 재단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고, 도움을 청할 마땅한 사람도 주위에 없었을 것이다. 이웃들에게 물어봤자 대부분 싸늘했을 것이고, 혼자서 탈북민 40~50명을 상대해야 하는 담당 공무원은 바빴을 것이다. 결국 모자는 굶어 죽었고 방치되었다.



소통의 어려움

탈북민들의 남한 사회 적응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우선 소통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필자가 알고 있는 한 탈북민이 어느 매체에 쓴 글이다.

“나에게 대한민국은 생각보다 더 낯선 곳이었다. 한국 사람들과의 대화는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웠다. 한국에 정착한 지 5년이 되는 지금은 그래도 괜찮지만, 처음 1~2년 동안은 내가 ‘이민자’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는 내가 이방인이라고 느꼈다. 내가 한국 정착 초기에 스스로를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바로 소통의 어려움 때문이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던 나는 아파트를 배정받자마자 그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시민단체에 가입해 활동하기 시작했다. 지역 주민들은 나를 친절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내가 소외감을 느낄까 봐 일부러 말을 걸어주곤 했다. 하지만 나는 당시 그들의 말을 절반 정도밖에 이해하지 못했다. 같은 한국 사람임에도 그들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탓에 그들의 질문에 답을 못하거나 생뚱맞은 대답을 하곤 했다. 결국 나는 그들의 대화에 끼지 못했고, 나 스스로가 그들과의 대화를 기피했다.”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서 겪는 소통의 어려움은 남한 사람들이 일상에서 쓰고 있는 수많은 외래어와 은어, 약어 때문이다. 특히 행정, 법률, 부동산 등 생활과 밀접한 전문 분야일수록 더욱 심하다. 또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물건 이름도 남북 간에 다른 경우가 많다. 세제(가루비누), 냉장고(냉동기), 보따리장사(퇴거리장사), 유치원 교사(교양원), 혈액형(피형), 강남콩(중당콩), 북어(보가지), 오징어(낙지), 갑오징어(오징어) 등이 그런 사례이다. 여성이 사용하는 일상용품의 어

휘 차이는 더욱 심각하다. 브래지어(가슴띠), 생리통(달거리아픔), 생리대(위생대), 밥술(밥가마), 마네킹(몸틀), 반찬(찜계), 세탁소(빨래집), 스커트(양복치마), 미니스커트(동강치마), 원피스(달린옷), 투피스(나넨옷), 드라이클리닝(화학빨래), 스타킹(살양말), 양파(둥글파), 양배추(가두배추), 채소(남새), 피망(사자고추), 타이즈(양발바지), 유산(애지기) 등이 그렇다.

남북이 같이 쓰는 말도 어감 차이 때문에 잘못 사용할 경우 상대를 불쾌하게 만들 수 있다.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네까?”라는 농담을 했다가 한국 재벌들을 욕박질렀다고 성토당했던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 탈북민 여성은 사장 비서로 취업했는데 회사 방문객을 가리켜 “늬은이”라고 말했다가 낭패를 겪었다고 한다. “늬은이들을 존경하고 례절 바르게 대하는 것은 우리 인민의 고상한 도덕품성”이라는 북한사전의 용례에서 확인되듯 북한에서는 ‘늬은이’가 비하어가 아니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늬은이’가 비하어로 여겨지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대신 ‘어르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문화 차이로 겪는 어려움

탈북민들은 남북의 문화적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한에서 경제생활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기에 본인이 직접 부가세 신고, 연말정산 등을 해야 한다. 따라서 관련 법규를 이해해야 하고 세무서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 탈북민들의 경우 관공서를 상대하는 업무가 버겁다. 남북한의 공공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남한의 법률, 규칙 등이 너무 난해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남한에서 태어나 정규교육을 받은 사람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게 법률인데 탈북민들은 오죽하겠는가. 북한의 경우 배급제가 기본으로서 세금이란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당국은 시혜를 일방적으로 베푸는 곳으로서 적극적인 소통의 필요성이 없다. 물론 1990년대 극심한 경제난을 겪으면서 배급제도가 무너지고 장마당 경제가 활성화되어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북한 체제의 기본은 사회주의 경제이다.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사회의 문화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 집단주의 사회인 북한에서는 사람이 방치돼 죽는 일은 일어나기 어렵다. 주민의 동태



가루비누, 냉동기, 되거리장사, 교양원 피형, 중당콩 보가지, 낙지, 오징어 가슴띠, 달거리아픔, 위생대, 밥가마, 몸틀, 찜계, 빨래집, 양복치마, 동강치마, 달린옷, 나넨옷, 화학빨래, 살양말, 둥글파, 가두배추, 남새, 사자고추, 양발바지, 애지기



세제, 냉장고, 보따리장사, 유치원교사, 혈액형, 강낭콩, 복어, 오징어, 갑오징어, 브래지어, 생리통, 생리대, 밥술, 마네킹, 반찬, 세탁소, 스커트, 미니스커트, 원피스, 투피스, 드라이클리닝, 스타킹 양파, 양배추, 채소, 피망, 타이즈, 유산




에 대한 보고체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이다.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서로 이웃집의 손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다 안다. 오히려 이웃의 과도한 관심 때문에 삶이 피곤하다. 반면 급속한 경제발전과 서구화로 개인주의가 팽배한 남한은 이와 정반대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으나 물질주의 확산과 공동체 문화 파괴로 이웃 간 무관심은 극도에 이르렀다. 같은 아파트, 같은 층에 사는 이웃끼리도 서로 잘 모른다. 이웃집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도, 동네 주민이 굶어 죽어도 그리고 그렇게 사망한 지 두 달이 넘을 때까지도 알지 못한다. 아니 애초에 관심도 없다.

남한 사람들의 북한 이해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은 향후 본격화될 남북 간 교류·협력시대에 발생할 수많은 갈등의 예고편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필요하다. 필자는 고양, 파주 지역에서 통일시민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통일과 남북 관계, 북한에 대한 강좌를 운영하지만 탈북민들과 같이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그중 탈북민과의 토크



쇼가 있는데 매번 운영할 때마다 절감하는 게 남한 사람들의 북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다. 무심코 던지는 말과 행동이 탈북민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남한 사람들은 모른다. 비록 호의라 하더라도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느껴지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른다. 역사사지하고 서로 존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분단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남북 간 이질화는 심화되었다. 그중 문화는 사람 간 소통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다문화 국가에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회 내 작은 갈등이 문화 차이로 인해 곧장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돼 폭력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남북 간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관용도를 높여야 하고 문화 차이를 좁혀야 한다. 특히 인구, 경제력 등에서 우위에 있는 남한 사회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남한 사람들의 북한 이해, 타 문화에 대한 관용이 깊어질 수 있도록 일관되고 꾸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긴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글을 맺으면서 봉천동 모자의 명복을 두 손 모아 간절히 빈다. 



백장현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졸업,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정치학 박사. 현재 한신대 초빙교수, 고양파주 통일시민학교 교장,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운영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